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

김 수 경(Soo-K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1. 독서의 본질 |
| II. 독서교육 왜곡의 현실 | 2.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 프로그램 사례 |
| 1. 독서교육 목적의 왜곡 | IV.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
| 2. 독서 교과서의 문제 | |
| 3. 독서교육 대상의 축소 | |
| III. 독서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사례 | |

초 록

독서교육이 독서 본질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왜곡된 문제에 대해 세 가지로 논의하였다. 독서교육의 왜곡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서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 독서교육자가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 본질을 살펴보고,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독서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독서본질, 독서교육, 독서치료,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ABSTRACT

I have discussed some problems of distortion in reading education. I think we must gi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true meaning of reading to overcome the matter. From the position of the readers I have looked into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cases of reading programs. I presented the directions for a new reading program.

Key Words: The True Meaning of Reading, Reading Education, Bibliotherapy, Reading Program, Library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ksk1101@hotmail.com)

• 접수일: 2006년 8월 27일 •최초심사일: 2006년 9월 8일 •최종심사일: 2006년 9월 21일

I. 서론

책 읽는 정부, 책 읽는 공무원, 독서진흥법안 발의 등 정부의 독서진흥 정책이 활발하다. 그런 가운데, 각급 시도 교육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독서교육 정책 및 시스템화, 각급 교육 현장에서도 시책에 따라 독서교육이 강화되고, 관과 민이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아침 독서운동,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북스타트 운동 등이 활발히 펼쳐지며, 독서학습지, 독서논술 학원 형태로 독서 사교육시장이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도서관에서도 고유의 업무로 여겨왔던 독서 영역의 서비스를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독서 열풍이 반가운 한편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다. 그 혼란과 두려움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독서기반 시설로서 미흡하나마 시설과 자료는 갖추어졌는데, 이를 전달하고 안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의 요구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관찰해 보면 도서관마다 대체로 독서교실¹⁾, 독서회²⁾, 평생교육 일환의 독서관련 프로그램³⁾을 운영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계층이 한정되어 있고, 내용도 다른 사교육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

- 1) 독서교실은 보통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2회 개최하는 방학독서교실이 일반적이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도 한다. 주 이용계층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리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루 동안 독서교실을 개최하는 일일독서교실도 있다. 일일독서교실 주 이용계층은 미취학아동을 비롯 초등학교 계층이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주부독서교실, 어린이독서교실, 청소년독서교실 여성독서교실 등으로 특정 참여계층을 명시한 독서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올바른 도서관 이용법, 독서자료선택법, 독서감상문작성하기, 독서감상화그리기, 동화구연, 신문활용수업(NIE), 원고지작성법, 독서신문만들기, 이야기교실, 글짓기지도, 창의적 글쓰기, 영어동화, 책만들기, 논술지도, 독서지도인력양성 등이 있다.(김홍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 4호(2004, 12), pp.352-354).
- 2)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회 조직 운영 현황은 1991년에 54.3%, 1999년에는 70.2%, 2004년에는 79.6%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서회는 크게 계층별, 주제별로 조직되어 있다. 계층별로는 주부(36.4%)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초등 고학년(24.3%), 그 다음이 중학생(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초·중·고학년, 취학전, 대학생, 직장인, 아버지, 노인, 혼합된 계층으로 조직되어 있다. 주제별로는 독서자료 연구(48.2%)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창작활동(30%), 전문지식학습 향토문화연구 지역정보개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김승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회 운영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6권, 제 3호(2005, 9), pp.71-72). : 독서회의 세부 내용으로는 글쓰기 지도, 자녀글쓰기지도, 독서감상문쓰기, 그림책만들기, 독후법, 좋은 책 읽어주기, 좋은 어린이책 전시, 도서관 관련 강연회듣기, 독서토론 및 문학토론, 작가와의 만남과 대화, 문학기행, 독서관련 자원봉사활동, 독서회보 발간, 문학집 발간, 문학의 밤 행사, 동화구연자원봉사, 좋은책 추천 등이 있다.(김홍렬, 위의 논문, p.354).
- 3) 동화구연, 영어동화, 글짓기지도, 글쓰기지도, NIE, 책이랑놀자, 글이랑놀자, 독서논술, 이야기들려주기, 독서지도, 영어독서지도, 영어스토리텔링, 자녀신문활용교실, 자녀독서논술지도, 동화나라 이야기여행 여성독서대학 동화책읽기, 영어동화읽기, 어린이글쓰기, 시민글쓰기, 창의적글쓰기, 독서퀴즈, 독서지도자과정, 중고생책읽기토론, 독서치료, 감상문 및 생활문 쓰기, 창의력개발교실, 유아창의력교실, 어린이창작극장, 책담현대 등이다. (김홍렬, 위의 논문, p.354. 각 지역별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서프로그램 중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명을 필자가 재나열함).

과 크게 차별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 가는데 정작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에 여러모로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 되는 도서관만의 독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990년대 디지털 논의가 활발할 때 우리는 책의 죽음과 전통적 도서관의 몰락을 예기하며 도서관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IMF 이후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타고 도서관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간판을 내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부는 독서의 이상 열풍 속에서 자칫 도서관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독서기반 시설로서 정체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독서의 본질은 무엇이며, 도서관 서비스로서 독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때라 여겨진다.

독서의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독서교육(reading education)’ 또는 ‘독서지도(reading guidance)’로 일컬어지는 ‘교육(education)’의 영역, 둘째, ‘독서클리닉(reading clinic)’으로 일컬어지는 ‘교정(clinic)’의 영역, 셋째, ‘독서치료(bibliotherapy)’로 일컫는 ‘치료(therapy)’의 영역이 그것이다. 현재 독서치료, 독서요법, 독서치유, 독서지도, 독서교육, 독서상담, 독서클리닉 등 용어가 혼재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는 그 목적과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 독서교육은 독서지도와 흔히 혼용하여 사용된다. 독서지도는 독서교육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강조한 것이며, 독서교육은 인간교육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쓰이고 있다.⁴⁾ 넓은 의미의 독서교육은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호로 된 언어- 문자언어, 음성언어, 영상언어 등-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포괄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좁은 의미로 문자언어로 쓰여진 ‘책’ 읽기 교육으로 한정하여 독서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언어교육이나 국어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독서교육은 어떻게 하면 책을 즐겁게 읽고 책을 좋아하고 읽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독자의 독서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좋은 책을 선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독서수준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여 좋은 책을 선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⁵⁾ 독서교육의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며, 주목적은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자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좋은 독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독서클리닉은 독서능력과 관련하여 독서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독서 장애를 일으키는 음소의 인식, 독해력, 말하기의 유창성, 이해력, 단어인식, 철자법, 속도, 어휘력, 난독, 학습부진 등과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⁶⁾ 독서클리닉은 읽기장애아 혹은 읽기부진아가 그 대상

4) 신현재 외 등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박이정, 1993), pp.8-9.

5) 김현희 외 공저, 독서치료의 실제(학지사, 2003), p.6.

이며, 이들의 독서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독서치료 또는 독서치유는 읽기부진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서장애 혹은 성장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이 오히려 독서치료의 적극적 대상이 된다. 실제 치료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치료는 책을 읽은 후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책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여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교육과 독서치료는 책을 읽은 후의 활동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목적과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서요법은 일본에서 1937년부터 bibliotherapy 를 독서요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독서치료와 독서치유, 독서요법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⁷⁾ 독서치료는 정서장애자 혹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는 이들이 적극적 대상이며, 주목적은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다.

이처럼, 독서교육, 독서클리닉, 독서치료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과 경기도 지역 일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받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정신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독서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독서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도서관의 치유 기능의 부활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치유 기능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게 하는 현상이다.

또한 독서클리닉은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독서지도사 과정을 설치하여 심화과정으로 독서클리닉과 치료 지도를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 대전 유성도서관에 독서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을 통하여 읽기수준을 검사하고, 진단하여 검사한 학생을 위한 개인목록을 작성해주는 독서클리닉 봉사활동이 있다. 또한 2001년 3월 28일부터 '한국독서클리닉연구회'를 결성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의 연구원들은 다른 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 강의와 학생지도를 지원하고 있다.⁸⁾ 그러나 독서클리닉은 읽기능력 장애로 인한 학습 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주로 특수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읽기장애 요인이 정서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독서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프로그램은 주로 독서교육과 독서치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서 프로그램이라 할 때 독서클리닉 부분을 제외한 독서교육과 독서치료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되, 주로 독서교육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6) 한복희, 독서클리닉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2004), p.43.

7) 김현희 외 공저, 앞의 책, pp.6-7.

8) 한복희, 앞의 책, p.40.

이 글에서는 독서가 마치 새롭게 배워야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독서교육의 과열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오히려 과도한 관심이 아이들을 독서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은 아닌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독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본질에 충실하게 실천되고 있는 독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독서가 단지 교육적인 기능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환경과 의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독서교육 왜곡의 현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적극 권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책 읽으라’는 어른들의 말이 반갑기보다 오히려 부담이다. 예전에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된다고 독서를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강권하고 있다. 왜 갑자기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나는 무엇보다 그 원인이 대학입시에 논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대입개선안에 따라 ‘독서이력철’⁹⁾의 도입,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¹⁰⁾ 등으로 독서가 대입 점수와 연관되어 ‘교육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나 각급 시도교육청에서부터 독서교육을 강조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독서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습 진도 나가기 바빠서 독서교육을 따로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하자니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즉 소기의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권장도서목록, 필독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책을 일률적으로 읽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

9) 2004년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 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우선 교과별 필독도서 권장 도서를 선정해 수업에 활용한 뒤 교과 담당 또는 담임교사(최근에는 독서교육전담교사도 이야기되고 있다)가 평가해서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독서이력철’이다. 이 독서이력철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육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필자는 ‘인권침해’와 ‘필독 및 권장도서목록’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안찬수, “독서기록과 추천도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기: ‘독서이력철’ 문제로 다시 생각해보는 독서교육,” 특집: 학교와 독서교육, 초등 우리교육, (2005. 10), pp.57-59).

10)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3월 22 일 초·중고 교과별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독서매뉴얼은 학교 독서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과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에 따른 것이다. 새 입시안에서는 2007학년도 교과 입학생부터 교과별 필독·도서가 제시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독서활동이 기록된다. 이날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독서매뉴얼’의 도서목록과 평가방식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의 기본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초 발표한 ‘학력신장 방안’ 중의 하나로 독서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실력 향상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준별 책 추천 ... 현 중2부터 독서 내신 반영,” [조선일보], 2005. 3. 23).

다. 일선 선생님도 부담이고 아이들도 독서 공부를 하기에 힘이 든다. 한 예로, 독서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한 대학생의 다음 관찰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의 왜곡된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얼마 전 내가 알던 한 중학생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기 학급의 친구들이 싸워서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매주 독서기록장을 써야 하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독서기록장도 대신 써달라고 했단다. 그러나 그 독서기록장이라는 것이 만약 자기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을 들키게 되면 써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물론, 써준 사람까지 수행평가 점수가 0점이 되는 ‘과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아예 같이 다니지도 않는다고 한다. 독서기록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제적이고 또 학생들에게 소위 ‘압박’으로 작용하는가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해 졌다. 하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독서기록장은 귀찮고도 까다로운 하나의 과제였다. 10원을 채워가야 되는데 다 못 읽었을 땐 인터넷에서 찾은 줄거리와 남이 올려놓은 서평의 몇 줄 씩을 베껴 제출하곤 했다. 그렇다면 점수는? 제출 기간에 제출 편수를 다 채우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면 모두 만점이었다. 이런 독서교육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씁쓸하다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2006년 1학기 독서교육론 기말과제 중).

수행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기록장을 둘러싸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살벌한 학교 생활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압박이 되는 독서기록장 채우기나 다독을 강요하는 형식적인 평가 방법 등은 독서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독서 활동이 수행평가로 점수화되니 불안하여 사교육시장을 찾아 ‘독서과외’를 시키게 되면서 학습 형태의 독서가 성행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에서 왜곡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본다. 즉 독서교육 목적의 왜곡, 독서 교과서의 문제, 독서교육 대상의 축소가 그것이다.

1. 독서교육 목적의 왜곡

독서, 즉 책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책읽기의 목적’에 대해 시인이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인 안찬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무엇보다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책읽기’가 강조되고 있다. ‘책읽기’가 국가 경쟁력의 기초라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나는 책읽기의 목적이 지식과 정보의 획득에만 있다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 물론 ‘책읽기’의 목적 가운데는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단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읽기만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을

‘생애의 독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책읽기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책읽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¹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책읽기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생애 독자로 나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주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첨단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독서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덕목이다. 우리는 흔히 ‘삶을 즐긴다, 취미를 즐긴다, 일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독서도 즐기는 과정과 행위의 일종이다. 인쇄매체의 발달로 읽고 쓰는 문해력이 개발되면서 독서력은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수단 못지않게 삶을 즐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매체가 발달된 사회에서 학교교육만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해 낼 수 있는 기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은 삶의 기본 기술이며, 평생 지속적인 독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능력이다.

그러나 최근 아이들에게 강제된 독서교육은 생애 독자로 나아갈 독서의 즐거움을 주려는 커녕 오히려 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가로막는 왜곡된 독서 현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다수의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현장과 사교육 시장에서 ‘학습 독서’ ‘기능 독서’가 성행하고 있다.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독서이력철, 독서매뉴얼은 물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¹²⁾ 사단법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독서능력검정시험,¹³⁾ 대전광역시교육청 독서능력평가원의 독서인증시험¹⁴⁾ 등을 통

11) 안찬수, 앞의 글, p.57.

12) 부산시 교육청에서 강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04년에 도입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의 독서와 독서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교육청이 지정한 권장도서를 읽고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된 1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고 이 가운데 6개 이상을 맞히면 독후감을 올릴 수 있다. 독후감을 남기면 인증쿠폰을 받는다. 한 학기에 8개의 인증쿠폰을 받으면, 국어수행평가(100점 중 20점)에서 만점을 받게 된다. ... 2004년 3월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 초중고생들의 독서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2004년 초 교육인적자원부가 1인당 연평균 대출도서를 조사한 결과 부산 학생들은 전국 평균치의 세배인 연간 9.1권에 달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3권에 그친 서울 학생들의 7배에 해당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에서 대학들이 이런 방식을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발 교육혁명... 우수 교사 릴레이 공개 수업”, [중앙일보], 2005. 6. 13).

13) 독서능력검정시험은 민간단체인 전국독서새물결모임에서 선정된 급수별 도서를 읽고, 객관식 70문제와 주관식 10문제를 풀어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해당 급수별 독서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전국독서새물결모임 홈페이지, http://readingkorea.org/rt_list.html, 2006. 7. 19).

14) 독서능력평가원의 인증시험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획지원하고 대전중등교육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5급, 200점 이상이면 4급, 300점 이상이면 3급, 400점 이상이면 2급, 500점 이상이면 1급이 인정된다. 득점 포인트는 ‘책 수준점수’와 ‘독점점수’가 합쳐져 합계 포인트가 계산된다. 문제는 객관식 문항과 단답형으로 10문제가 출제된다. 10 문제 중 7 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으로 인정되어 점수가

해 교과학습과 관련된 책, 급수별 혹은 학년별로 권장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시험을 치르는 ‘독서 결과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 도구로 전락한 ‘기능 독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¹⁵⁾ 결국 대입 위주의 출세우기식 교육 풍토 속에서 강제되고 획일화된 독서교육 방식은 독서의 사교육화를 조장¹⁶⁾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독서습관을 들이는 최적기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2000년 이후 활발히 연구, 실천되고 있는 독서치료 분야에서도 독서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질을 가로막는 혼란이 보인다. 김정근 교수는 이러한 독서치료에서 보이는 혼란 양상에 대해 세 가지 함정, 즉, 수입학의 함정, 경계 혼란의 함정, 목적 상실의 함정을 들고 있다.¹⁷⁾ 특히 이 중에서 독서치료에서 ‘목적 상실의 함정’은 독서교육의 사교육화 현상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목적 상실의 함정’에서 김정근 교수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말할 것도 없이 치유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치유 경험보다는 치유에 ‘관한’ 지식이 주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치유서를 읽는 과정에서 상처가 관리되고 완화되고 치유되기보다는 치유에 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고 기능이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여 치유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활동이 사교육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 따르는 일종의 ‘상업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고 있다.¹⁸⁾

김정근 교수의 통찰에 의하면, 독서치료 관련 교육과정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관한’ 지식 형태로 전달되어 독서치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기존 우리가 강조했던 독서는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훈육하는 ‘교양 독서’나 능력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성취의 수단으로 하는 ‘지식 독서’라 할 수 있다. 김정근 교수는 독서치료를 기존의 독서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교양 독서’를 제1의 영역이라 하고, ‘지식 독서’를 제2의 영역, ‘독서치

부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득점 포인트가 없다. 자격증은 년2회 무료로 발급된다(독서능력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cyberbook.or.kr/test3.html>, 2006. 7. 19).

15)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독서는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2) 독서활동 기록도 봉사활동 기록처럼 형식적 항목으로 전락한다. 3) 궁극적으로 독서의 본질- 즉 책읽는 즐거움-을 훼손한다. 4)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없다. 5) 출판시장이 왜곡된다.(박홍진·황인회, “도서관 활용수업의 실제”, 계명대학교중등교육연수원, 「2005년도 동계 중등교원 도서관활용수업적무연수교재」, 동연수원, 2005, 86-93쪽.)

16) 독서의 사교육화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이연옥은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독서가치의 왜곡, 둘째, 독서지도사 양산으로 인한 독서의 사교육화 확산, 셋째, 독서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초래이다(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5권, 제3호(2004. 9), pp.53-59.)

17)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Vol.60, No.2(2005. 12), pp.170-173.

18) 같은 논문, p.172.

료'를 제3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독서치료는 “인간을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는 책읽기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책읽기이다.¹⁹⁾ 그러나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위주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식 독서’의 영역과 흡사하다. 이처럼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에서 보이는 ‘학습독서’ ‘지식 제공형 독서’는 독서가 사교육시장의 상업주의와 연계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서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도 ‘기능 독서’ 지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교육훈련’에서 독서 관련 교육과정 내용²⁰⁾을 살펴보면 독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독서이론과 독서지도 방법에 관한 ‘이론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서지도사 양성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한우리독서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²¹⁾과 크게 차이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우리독서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과정의 교육내용만 비교해 볼 때, 물론 교육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독서 사교육 시장에 비해 도서관계의 교육 내용이나 체계가 오히려 빈약해 보인다.

독서 열풍에 발맞추어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도 독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빈약하며, 구태의연하기도 하고, 사교육시장의 강사진을 활용하여 학교나 사교육시장과 차별화되지 않는 ‘학습 독서’, ‘전략 독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독서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독서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사교육시장으로 쏠리면서 ‘학습 독서’로 전락하여 오히려 아이들을 독서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2. 독서 교과서의 문제

독서능력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기본 기술의 일종이며, 독서교육은 문화를 수용하고 창조하

19) 김정근, “세계 책의 날 특별 기고 - 제3의 독서영역”, [교수신문], 2002. 4. 29, 5면.

20) 200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독서관련 연수는 4가지 과정이다. 모두 유상교육이며 교육기간은 보통 1주일 미만이다. 독서지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독서치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다. 독서지도의 경우만 살펴보면, 기초과정에는 독서론, 자료선정, 독서프로그램의 실제, 독서교실운영방법, 발달단계별/읽기중심의 독서지도, 창의적 독후활동, 아동청소년심리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과정에는 동화구연, 글쓰기지도, 독서토론 NIE, 독서활동, 논술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옥,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247-248).

21) 한우리독서운동본부는 1992년부터 독서지도사를 양성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 22주 간이며 출석반과 온라인반이 있다. 수강료는 74만원(출석반)과 68만원(온라인반)이다. 교육내용은 독서교육론(독서와 독서지도의 이해, 아동의 발달심리, 교육심리와 학습지도, 교육학 일반이론, 독서지도와 교육평가이론), 독서자료론(도서선정의 원리, 아동문학사, 아동문학론, 도서종류별 독서지도, 읽기방법지도, 글쓰기 지도의 실제), 독서논술지도론(독서논술, 논리와논술), 독서지도방법론(독서감상문의 개념과 실제, 독서전 지도방법, 독서토의 지도의 개념과 실제, 창의적인 독후활동, 독서지도 교수법과 지도계획안 작성), workshop 및 특별수업(ST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우리독서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hanuribook.or.kr/>, 2006. 8. 2).

는 문화교육의 일종이다. 그러나 문화교육은 교과서만으로 할 수 없다.²²⁾ 따라서 독서교육은 전략적 방법만으로 할 수 없다. 직접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읽히며 어떤 변화를 체험하였는지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 변화의 힘은 지속적인 독서인으로 이끈다. 지극히 ‘개인적 행위’인 독서가 ‘사회적 소통 행위’가 되려면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동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기존의 독서교육이 실패한 이유는 ‘책을 많이 읽어라’는 막연한 권고를 남발하는 데 있다. 지금의 독서 교과서는 대신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직접 가르치겠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 독서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독서 기능의 신장과 올바른 독서의 태도와 습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한 형태가 바로 ‘독서 교과서’²³⁾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서이론이나 전략을 직접 가르치는 방식의 독서 교과서로서 독서 능력을 신장할 수 할 수 없다. 스키마이론은 인지심리학의 자식이지만 존재심리학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글을 읽는 능력이 텍스트 내적 요인뿐 아니라 텍스트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주체’로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독서이론으로는 볼프강 이저의 ‘독자반응이론’이 독서에서 더욱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독자반응이론은 스키마 이론과 더불어 독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 이론이다. 독서 교과서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 들어오는 글 즉 자신과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이다. 독서 교과서가 할 일은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서의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²⁴⁾

그러나 현행 독서 교과서는 독서에 ‘관한’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는 독서의 본질에 대해 ‘독서의 기능과 특성’, ‘독서의 과정’, ‘독서의 방법’, ‘독서의 가치’라는 네 가지 소주제로 분석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다.²⁵⁾ 그야말로 독서에 대한 교과서적인 탐색이다. 독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독서의 과정, 방법, 가치, 원리, 태도 등 독서의 이론적인 면의 고찰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독서교육의 대상자, 즉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마다 자신의 독서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독서 이론은 독서를 지도하는 사람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지, 독서교육 대상자가 ‘학습’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독서교육은 ‘경험 학습’ 혹은 ‘의미 있는 학습’²⁶⁾ 이므로 개성 교육에 가깝다. “제도교육은 개성보

22) 박복선, “청소년 문화와 국어교육의 소통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15(2002. 12), p.98.

23) 독서교과서는 1996년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교의 재량으로 고교 현장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

24) 박복선, “독서 가로막는 독서교과서,” 『특집: 독서교육의 길찾기 그리고 터잡기』, 중등 우리교육, (1998. 10), p.65.

25) 심재기 외, 고등학교 독서(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26) “의미 있는 학습은 스스로 시작한 학습이다 자극이나 충동이 외부에서 올지라도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내부에서 온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은 파급된다. 그것은 학습자의 행동, 태도, 심지어는 인성의 변화를

다는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서교육은 학교교육과는 차별이 되는 아이들의 개성을 살리고 책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선별한 책을 맘껏 즐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극적 경험(peak experience)’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독서교육이다. 이런 경험은 보통 지속적인 독서로 이어진다.”²⁷⁾

독서교육에서 독서교육 대상자에게 독서 교과서는 필요 없다. 독서지도자가 적어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여러 조건과 능력에 따라 세밀하게 고려한 도서목록²⁸⁾ 정도가 바로 교과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독자가 책을 읽으며 하는 ‘극적 경험’이 독서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여 지속적인 책읽기로 이끈다. “내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는 외적 환경 때문에 생기는 변화보다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²⁹⁾ 따라서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서를 통해 배우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 즉 배우는 것이 삶의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돕는 지도자(교사, 사서, 학부모, 전문 독서지도교사 등)들의 역할은 스스로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들을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3. 독서교육 대상의 축소

독서교육의 대상으로 우리는 흔히 어린이 청소년을 들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³⁰⁾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성인들에게 독서교육은 더욱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학교교육을 지원 하면서 평생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진작시키는 기능으로 나아가야 한다.³¹⁾

가져온다. 의미 있는 학습은 학습자 자신에 의해서 평가된다. 의미 있는 학습이 학습자가 경험하고 있는 무지의 어두움을 밝혀주는지의 여부를 그 자신이 알게 된다. 또 평가의 중심이 분명히 학습자 내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학습의 본질은 의미이다. 그와 같은 학습이 발생할 때 학습자에게 주는 의미는 경험 전체 속에 스며들어 간다.”(Carl R. Rogers, 『학습의 자유: 인간중심교육』, 연문희 옮김, 문음사, 2002, pp.41-42).

27) 박복선(1998, 10), 앞의 글, p.65.

28) 안찬수, 앞의 글, p.59.(독서이력철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작성되는 것이 필독 및 권장도서목록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목록을 만들 때 학교별 또는 교사별로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지도자는 물론 학생들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가를 위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도서목록은 분명 문제 있다. 그러나 수많은 책 중에 독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잘 선정된 도서목록은 독서교육에서 필요하며, 또 요긴하다.)

29) 이러한 극적 경험에서 오는 내적 변화를 매슬로우(Maslow)는 황홀감이라 묘사했다. “시아에 전개되는 무수한 수평선, 그 전보다도 훨씬 무기력해지면서 동시에 보다 강력함을 느끼는 기분과 황홀감과 경이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시간과 공간에서 위치를 상실한 느낌, 마침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값진 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와 같은 경험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오고 힘이 생겨난다.”고 하였다.(Carl R. Rogers, 앞의 책, p.57).

30)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은 생애교육, 계속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이란 용어들과 함께 쓰고 있다. ‘평생’이란 단어와 ‘교육’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명사이다. 따라서 평생의 개념과 교육의 개념을 모두 내포한 의미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여 인간을 지도하는 의식적 활동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곽동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6권, 제 2호 (2005. 6), pp.72-73).

학교에서 실시되는 독서교육과 달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형식적 교육³²⁾ 이라기보다는 비형식적 교육³³⁾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성인, 주부, 노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책 읽지 않는 세대 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교육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목록 배포나 강의 등 단순히 책 읽히기 교육이 아니라, 개인별 독서흥미를 개발하고 독서능력을 신장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실현하는 종합적 교육과 서비스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처럼 독서교육은 특정한 어떤 연령층이나 계층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³⁴⁾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은 평생학습사회에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평생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기본 기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은 ‘도서관’과 ‘독서’ 및 ‘정보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은 이러한 키워드를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들은 도서관이나 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단지 교육 공간만 제공할 뿐 평생교육의 주요 기능과는 상관없이 외부 강사나 전문가에 의존하여 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³⁵⁾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구하고 활용하며, 인류 문화유산을 향유하여 재창조하고, ‘민중의 대학’, ‘주민의 서재’로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생애 교육 혹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 기관의 하나이다. 그 바탕에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풍부한 자료가 있다. 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자료를 매개로 한 비형식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도서관에 개설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제도교육이나 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중 독서교실, 독서회 등은 사서들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자

31) 위의 논문, p.84.

32) 형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지닌 교사가 동질의 학생에게 일정 기간 표준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화된 교육을 의미한다. 그래서 폐쇄적이고 규정적이며 선발적이고 경쟁적이라 할 수 있다. (임형연,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미국 보스턴 주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400).

33)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이란 개인의 광범위한 요구와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직장 놀이터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독서, 강연, 세미나, 연수, 유희 등 일상경험이나 환경과의 접촉에 의해 개방적이고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성을 갖추지 않은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같은 논문, 같은 페이지).

34) 김경자,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79.

35) 박동철(2005. 6), 앞의 논문, p.85.

들이 책과 직접 대면할 수 읽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 평생교육 일환으로 실시되는 어린이와 성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 강사나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독서교육의 틀과 수준은 전적으로 독서지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³⁶⁾ 독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틀은 외부 강사의 교육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독서 프로그램은 사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독서교육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기관의 아류라 할 수 있는 정도로 도서관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독서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한정되는 것은 대학입시와 교육과정에서 독서, 논술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독서교육을 ‘교육’의 관점을 강조하거나 학교교육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그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축소된다. 그러면 독서능력검정시험, 독서교육정보시스템과 같은 획일적인 시스템 안에서 독서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등 독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독서 프로그램이야말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잘 갖추어진 자료를 매개로 사서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전 연령층에게 독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독서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른들이 솔선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모습은 가장 좋은 본보기 교육이다. 우리나라 성인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독서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독서교육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Ⅲ.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사례

1. 독서의 본질

어린이책 평론가 최윤정은 독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서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런데 독서라는 주제는 늘 집단에 의한 운동으로만 얘기되고 있다. 자유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을까? 무언가에 몰두해 보지 않은 사람이 몰아지경(沒我之境)이라는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경험이 빠진 사고는 공허할 때가 많다. 독서교육의 경우가 그렇다.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읽는다(讀)는 것이나 책(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사실, 독서는 한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무엇이다.”³⁷⁾ 라며 독서의 본질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은 체험에서 얻어진다고 말한다.

36) 정옥년, “사회교육기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 독서 연구, 제12호(2004), p.198.

프랑스에서 중등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다니엘 페나크는 그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독서의 본질에 대한 에세이를 ‘소설처럼’ 쓰고 있다. 그는 “책을 읽는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 그렇듯, 삶의 시간을 확장시킨다. (중략) 독서란 효율적인 시간 운용이라는 사회적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독서도 사랑이 그렇듯 그저 존재하는 방식인 것이다. 문제는 내가 책 읽을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저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이다.”³⁸⁾ 고 하며 독서의 본질은 삶의 존재 방식의 하나이며, 즐거움이 바로 독서의 본질이라고 한다.

위의 두 의견은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란 한마디로 삶의 일부로서 삶을 이루는 존재 방식이며, 즐거움이고,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의 본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즉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가. 즐거움

무엇보다 독서의 본질은 즐거움에 있다. 아동문학 평론가 릴리언 스미스 여사는 “아이들은 몰입시킬 정도로 책이 재미없으면 책장을 덮어버린다”고 하여 아이들은 즐거움에 따라 책을 읽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이이고 어른이고 모름지기 독서는 즐거워야 한다.

20여 년간 어린이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캐나다 위니펙 대학 영문학교수인 페리 노들먼은 ‘책읽기의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 책읽기의 즐거움은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과 감정에 좌우되어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한다. 조안 글레이저(Joan I. Glszer)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 Literature for young Children』에서 이렇게 말한다. “문학은 배우기보다는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롯 헉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발전시킨다. 이것은 격려해야 할 일이지 가르쳐야 할 일은 아니다.”³⁹⁾ 라며, 책읽기는 배움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며,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페리 노들먼은 읽기교육의 확고한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책읽기를 강요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아이들에게 책읽기에서 가르쳐서는 안 될 다섯 가지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읽기를 즐기는 동안 낱말 뜻 풀이를 하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읽는지 걱정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책을 동일한 방법으로,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으며, 텍스트에 대항해서 읽을 자유가 있다. 셋째,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금과옥조로 받아들여 일차적인 목표를 두지 않고 읽는다. 즉 책읽기를 받아들여야 할 대답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할 질문의 원천으로 본다. 넷째, 우리가 책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 특히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해석이나 반응을 그대로 외우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는 책에서 영성하게 관련된 재

37) 최윤정, 그림책: 평론집(비룡소, 2001), pp.32-33.

38) 다니엘 페나크, 소설처럼(문학과지성사, 2004), 이정임 옮김, pp.160-161.

39) 페리 노들먼 지음,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1(시공주니어, 2001), 김서정 옮김, p.68.

미있는 놀이를 해 보는 것으로 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게임으로 만든다든가, 거기 묘사된 음식을 요리해 본다든가, 주인공을 인터뷰하는 리포터가 되어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다.”⁴⁰⁾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나 독서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금기사항을 오히려 잘 준수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에서 ‘문학’은 책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가장 보편적인 장르이며, 스토리와 언어의 즐거움에 눈 뜨게 하는 최초의 읽기 자료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문학)책을 읽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문학)책을 전해주는 이들이 가진 독서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준비된 선생님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소설, 인문교양, 과학교양서, 예술비평서들을 통해 스스로 삶을 윤택하게 가꾸어본 사람만이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테크닉들이 아니다. 선생님들의 즐거운 책읽기 경험에서 비롯된 책과의 만남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를 전하려는 열정적인 태도이다.

나. 자율성

독서는 강요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독서 행위의 자율성에 대해 다음의 성찰만큼 적합한 것이 없을 듯하다.

‘읽다’라는 동사에는 명령법이 먹혀들지 않는다. 이를테면 ‘사랑하다’라든가 ‘꿈꾸다’ 같은 동시들처럼, ‘읽다’는 명령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즐기차게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책 좀 읽어라 제발!” “너, 이 자식, 책 읽으라고 했잖아!”라고. “네 방에 들어가서 책 좀 읽어!” 효과는? 전혀 없다.⁴¹⁾

‘읽다’라는 동사는 ‘사랑하다’, ‘꿈꾸다’와 같은 동사처럼 명령문이 어색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강요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를 냇가로 끌고 갈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지 직접 그 책을 읽도록 강제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

어린이책 평론가 최윤정도 독서교육에서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독자의 방식대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고 읽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도 즐거이만 쫓아갈 수도 있고, 등장인물 중의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심리의

40) 같은 책, pp.70-72.

41) 다니엘 페나크, 앞의 책, p.15.

추이에 주목할 수도 있으며 마음에 와 닿는 몇 개의 구절만을 자기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또, 한 독자가 같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은 보편타당한 어떤 외부로부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자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독서만이 '책과의 만남'이라는 독서의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독후감 쓰기라든가 내용 요약, 독서토론 등의 기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독서지도는 국어교육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텍스트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염두에 둘 것은 아이들의 지적인 발달 과정상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은 나란히 발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⁴²⁾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독서지도 방법으로 독후감쓰기나 내용 요약, 독서토론 등의 기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국어교육의 일부이며,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독서교육은 '의미 있는 학습'처럼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찾아나가며 배우는 '자율적인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다. 무상성

독서는 어떤 결과에 의해 평가받아서 안된다. 독서는 즐거워야 한다. 다니엘 페나크는 “즐거움이란 어느 정도 무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레 책읽기에 길들게 하려면 이 무상성이 필요하다. 즉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⁴³⁾ 또 독서의 무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치 무슨 성벽이라도 두르듯 책에 대한 사전 지식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읽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담 주지 말고, 읽고 난 책에 대해서 한 마디도 보태려들지 말아야 한다. 선부른 가치 판단도, 어휘 설명도, 문장 분석도, 작가에 대한 언급도 접어두어라. 요컨대 책에 관한 그 어떤 말도 삼갈 일이다. 그저 책을 읽어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호기심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일깨워주어야 한다. 읽고 또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머잖아 곧 의문이 생겨나고, 그 의문이 또 다른 의문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한다. ...(중략) 일단 책과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⁴⁴⁾

단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글자를 모를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책을 읽어주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어서 책과

42) 최윤정, 슬픈 거인(문학과지성사, 2000), pp.195-196.

43) 다니엘 페나크, 앞의 책, p.163.

44) 같은 책, pp.163-164.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⁵⁾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책의 즐거움에 눈을 뜨고, 스스로 책의 주변 영역에 지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이야기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들과 자신의 삶과 결부시켜 나가며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에 동반자로서 안내자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서교육을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낱낱이 분석하여 시험문제 풀듯이 문제를 푼다거나 독후감쓰기 등의 활동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그 전에 독서교육자가 할 일은 자신의 독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공유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 수준과 흥미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연령층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등에 대해 관찰하고 세밀하게 고려해서 좋은 책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다음 좋은 책을 독자의 손에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즉 책읽어주기, 스토리텔링, 옛이야기 들려주기, 북토크(book talk), 다양한 계층과 주제를 가진 독서회 조직 등을 통해 독자들이 책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독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독서의 본질은 첫째, 즐거움에 있다. 둘째, 자율성에 있다. 셋째, 무상성이다. 즉 독서는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언제, 어떻게, 무슨 책을 읽는지 읽는 이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독서는 자기 스스로 즐거운 경험에 의해 지속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하는 경험 학습이며, 독서한 이후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평가하여서도 안된다.

2.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 프로그램 사례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데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사례는 의외로 많지 않다. 정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독서기반 시설로서 여러 가지 독서 활동을 해왔다. 각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회, 방학 독서교실 및 일일 독서교실, 4월 도서관주간, 9월 독서의 달 행사, 평생교육 일환의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권장도서 목록 작성 및 배포, 각종 전시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기반이 되지 않는 듯하다. 그저 관행적으로 해 온 프로그램이니 할 따름이었다. 또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른 사교육기관에서 잘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독서교육의 강화로 눈에 드러나는 결과 위주의 독후감쓰기나 다양한 독후활동이 강조된 교육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45) 같은 책, p.167.

독서 본질에 맞게 운영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자의 주변에서 관찰된 몇몇 사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수업 풍경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인 이들은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뜻있는 학부모, 시민단체, 학교도서관 담당 일반교사들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들이 많지만, 12년 동안 학교도서관을 담당한 한 국어교사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⁴⁶⁾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화여자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사례는 다소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준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독서의 본질에 근접한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수업은 신선하고 재미있다. 여기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수업을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어교사가 왜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또 학교에서 책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중략) 지식 위주의 국어시험 문제를 벗어나 제대로 된 국어나 독서 과목의 문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읽기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책읽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읽을 책이 필요하고, 읽을 시간이 필요하고, 읽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춘 공간이 바로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이 바로 서야 책읽기가 바로 서고 책읽기가 바로 서야 국어수업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하략)

국어교사로서 지식위주의 국어나 독서 시험문제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후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책읽기라고 한다. 책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읽을 책, 읽을 공간을 고루 갖춘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서수업은 그 의미가 깊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에서 하는 독서수업의 풍경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첫 독서수업.

46) 대구 성화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홍진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의 글 참조할 것 박홍진·황인희, 도서관 활용 수업의 실제(계명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05년도 동계 중등교원 도서관활용 수업 직무연수 교재), pp.39-74.

“이 시간은 독서시간이다 나는 여러분이 책을 읽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인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독서에 관한 이런 저런 이론을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건 공부다 교과 공부는 절대 하지 마라. 교과서나 문제집을 가져오면 빼앗아서 학년이 끝나는 날 돌려줄 것이다”

내가 도서관을 운영해 온 지난 10여년은 도서관과 독서실의 전쟁이었다. 도서관 책상 위에 칸막이를 하고 공부 선수들에게 자율 학습 공간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심지어 도서관을 돌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에 성적 우수자들을 위한 자율학습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욕박지르기까지 했다. ...(중략) 그런 상황에서 입시라는 무서운 파도로부터 도서관을 지키는 것이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는 나의 사명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도서관에서만은 교과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략) “학교도서관에서는 시험 하루 전날이라 할지라도 교과서를 들고 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말할 뿐이다

박홍진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수업의 첫 번째 방침은 학교도서관에서 교과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저 독서시간에 아이들에게 교사의 어떤 개입도 없이 묵묵히 책을 읽으라고만 한단다. 다음 장면 또한 재미있다

(중략) 구태여 윤독을 하고 여러 가지 독후활동을 해보야 학생들은 이렇게 항의하기가 일쑤다 “선생님! 독후활동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발 그냥 책을 읽게 해 주세요.”

“얘들아, 독서는 실기과목이니 이론과목이니?” 이 엉뚱한 물음에 잠시 어리둥절하던 녀석들은 이내 “실기과목이요!”라고 고맙게 외쳐댄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기 과목 선생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라고 되묻는다. 더 이상 기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 내가 직접 답을 이야기 할 수밖에. “실기교사는 학생들이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1년 동안 편안한 자세로 독서하는 시범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이들 옆에서 책만 읽거나 밀린 도서관 일을 해도 되는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략)

두 번째 방침은 책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여러 독서관련 활동보다는 선생님이 실기교사처럼 조용히 책읽기 시범을 보이며 함께 각자의 책읽기에 몰입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 각자의 영혼을 흔들어줄만한 책 한 권만 만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독서수업을 하는 박홍진 선생님의 독서교육 방법은 너무 단순하며,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독서교육의 첫 걸음은 박홍진 선생님 독서수업처럼 아이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사례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0 년부터 어린이책 연구와 문화 운동을 펼쳐온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우리나라 척박했던 어린이 도서문화를 가꾸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역모임인 동화읽는모임⁴⁷⁾ 중에서 몇몇 지역의 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문화사랑방 구실을 한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빌려갈 뿐 아니라 다양한 도서문화행사를 통해 책을 통한 문화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갈 곳이 없는 마을 아이들의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⁴⁸⁾

또한 동화읽는어른모임은 2004년부터 ‘책읽어주기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동화읽는어른모임은 그동안 내 아이와 이웃의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아이를 넘어서 학교와 도서관, 공부방, 복지시설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어른과 아이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희망을 품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⁴⁹⁾

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 하는 책 읽어주기 방법⁵⁰⁾은 책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책 읽어주기 활동 성과로 미루어볼 때, 책 읽어주기 활동은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책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어린이가 호기심과 즐거움, 감동으로 대표되는 독서의 본질을 되찾게 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47) 동화읽는어른모임은 1993년 안동, 시흥, 광명에서 만들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104개 모임에서 4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전국 시, 도, 군 별로 지역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 어린이 문화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 어린이 책 공부도 하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린이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국 동화읽는어른모임은 어린이책 공부를 바탕으로 학급문고·학교 도서관·마을도서관 살리기 운동과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책 읽어주기, 인형극, 빛그림, 그림자극 같은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교육과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childbook.org/new2/>, 2006. 8. 2).

48) 이송희, “서울시 교육청 발간 <초등 독서지도자료>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 독서매뉴얼, 독서인증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방향 모색》(2005. 4. 27), p.31.

49)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childbook.org/new2/>, 2006. 8. 2.

50) 책 읽어주기 이렇게 합니다.(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 <http://childbook.org/new2/>, 2006. 8. 2).

“1. 어린이도서연구회가 권장하는 책 가운데 읽어주기 알맞은 책을 고른다. 읽어주는 사람이 감동받았던 책일수록 좋겠다. 2. 읽어주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본다. 3.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4. 읽어주는 사람이 느낀 것을 듣는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맞추면서 읽어준다. 5. 책을 읽어주고 나서 다른 독후활동은 하지 않는다. 책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6. 책을 읽어주고 나서 기록을 해둔다. -읽어준 날짜와 장소, 아이들의 반응과 읽어준 사람의 느낌 따위를 간단히 기록지에 적어 모아 두었다가 모임에서 평가시간을 갖는다든지, 자료집을 만들 때 활용하도록 한다”

일찍이 미국에서 ‘책읽어주기 운동’을 열렬히 주창한 짐 트레일러에 의하면 ‘책읽어주기 운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책 읽어주기 전통이 깊었던 미국에서도 현대에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발달과 핵가족화로 책 읽어주는 미덕이 줄어들면서 TV방송에서 유명 인사가 출현하여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만큼 책읽어주기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특히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책읽어주기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한다.⁵²⁾

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에게 단지 책을 사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모나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점차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정서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이끄는 데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 사회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독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책 읽어주기야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무상의 배품이다.

2002년 2월 박영숙 관장의 사재를 털어 경기도 용인 수지에 문을 연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은 2003년 공익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지난 7년간의 역사 속에서 크게는 지역 문화 사랑방을 만드는 공동체 활동이랄 수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도서관이 있었다. 꼼꼼하게 선정되어 균형 있고 특색 있게 갖추어진 ‘장서’와 ‘책이 있는 놀이터’ 같은 편안한 분위기,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문화활동’들을 섬세하게 조직하고 있다. 아파트 지하상가 40평 밖에 안 되는 지하실을 아이들이 맘껏 뒹굴고 책을 보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엇보다 여기에 와야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분당, 수원 등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곳이다. 꾸준히 이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와 보면 언제나 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좋은 시설, 특별한 문화행사도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을 꾸준히 찾게 만드는 힘은 역시 좋은 책이라고 한다.⁵³⁾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처럼 탄탄한 장서를 기반으로 날마다 다양한 형태로 책을 읽어주는 활동과 열 개가 넘는 동아리⁵⁴⁾들이 활동을 하며 전시회나 음악회 같은 문화행사⁵⁵⁾도 연다.

51) 이승희, 앞의 글, p.30.

52) 짐 트레리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오리진, 1995), 이일남 옮김, pp.8-9.

53) 박영숙,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7년을 돌아보며,” 열린정책세미나자료집, 제 2집 (2006. 5. 28), 국립중앙도서관, pp.53-55.

54) 어른 독서 동아리와 어린이 책 읽기 동아리가 있다. 어른 동아리는 자원활동 조직이 꾸려지는 바탕이 된다. 책을 읽으며 엄마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고 여기고 아이들에게만 매달렸던 데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책읽기 동아리는 혼자 책을 골라 읽을 만한 아이들이 수다도 떨고 토론도 하는 동아리이다. 모든 활동은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며 꾸려간다. 엄마 독서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두어 명씩 도우미로 참여해서 활동을 돕지만 독서지도를 하지 않는다.(같은 글, pp.69-70).

55) ①책읽어주기-매주 수요일 ‘이야기 극장’이 열린다 불을 끄고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림을 맘껏 감상하면서 아이나 어른이나 읽어주는 책을 듣는 재미에 푹 빠진다. 날마다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 오면 아이는 ‘이야기방’에

느티나무의 문화 활동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방적,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하지 않는다. ②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걸 한다. ③ 책과 함께 스스로 꾸러가는 동아리를 꾸민다.(따로 수강 신청을 받아 독서지도, 동화구연, 논술 같은 강좌를 열지는 않는다. 정해진 목록으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해서 그 성과물로 평가를 하는 건 오히려 아이들이 책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④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함께 참여한다. 배워서 남주기! ⑤ 통합! - 나이, 성별, 장애, 계층, 학습능력까지(나이나 학습능력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경쟁에서 놓여나게 된다. 나이 어린 아이에게 배우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돌봐줄 줄도 알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자남자를 가리는 활동도 하지 않는다. 장애도 도서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데 벽이 되지 않는다. 글도 못 읽고 심지어 말도 잘 못하는 언니 오빠들 하고 어울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없이 자기들이 도와줘야 할 걸 찾아서 잘 어울려 지낸다. 어린 꼬마들이 덩치가 훨씬 큰 언니 오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느티나무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⁵⁶⁾

도서관의 움직이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운영상황을 알 수 있다.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설립 배경에 대해 박영숙 관장은 “‘도서관’에서 출발해서 만들어 진 곳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이 된 곳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곳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크는 힘이 크다. 호기심 덩어리여서 무엇이든 탐험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커나가는 자양분을 빨아들인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환경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많은 곳을 다녀보고, 많은 책을 뒤져본 후 얻은 답이 ‘책이 있는 놀이터’였다.”⁵⁷⁾ 고 한다. 이처럼 느티나무는 도서관이 먼지가 아니라 주이용자인 ‘어린이’를 먼저 생각하고 만들어진 공간이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커나가기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느티나무의 정신이 도서관 운영 방침의 곳곳에 배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신이 구현된 형태가 위에서 살펴본 느티나무 도서관의 책읽어주기, 동아리, 문화행사들인 것이다. 느티나무의 이런 운영 사례는 바로 독서 본질, 삶의 본질과도 맞닿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좋은 책을 구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리고 공간 자체를 아주 매력적으로 꾸몄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기차모양의 서가는 아이들이 직접 기차에 앉아서 책

스탠드를 켜고 두꺼운 책을 한 권씩 펼쳐든다. 분량은 하루에 세 쪽씩, 일주일에 나흘을 읽는다. 이야기 극장 손님이었던 꼬마가 자라서 책 읽어주는 언니가 되기도 한다. 온 종일 도서관에서 책읽어주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② 작가 만남, 강독(책풀이마당), 강연(시민사회교육장), 마주이야기(도서관운영자와 이용자간의 이야기주고 받기) ③ 글쓰기 강좌(꾸준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의 글쓰기 모임)와 <우리마을이야기> 책자 펴내기. ④ 전시회, 영화상영, 음악감상 ⑤ 마을학교 ⑥ 모꼬지 어린이날 잔치, 작은음악회, 마을축제, 책전시회...(같은 글, pp.70-74).

56) 같은 글, pp.66-68.

57) 같은 글, p.50.

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전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1년 5월 문을 연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마녀가 들려주는 그림책이야기’(사서와 자원봉사자가 간단한 마녀복장을 하고 열람실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와 ‘금요일 슬라이드’(사서선생님이 재미난 그림책 슬라이드와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다.⁵⁸⁾ 부천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이진우 사서팀장과의 인터뷰⁵⁹⁾에서 독서 본질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이 사서는 “독서를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나 독서 후 토론 정도가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 한다. 준비 중인 프로그램의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자율적 독서 동아리’라고 한다. 현재 준비 모임만 2차례 정도 가진 상태라고 한다. 처음 동아리가 만들어질 때 사서의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라 한다.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이 2003년도에 MBC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사회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물/공간/프로그램의 표준 모형을 구현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9곳의 지역(전남 순천, 충북 제천, 진해, 서귀포, 제주, 청주, 울산북구, 충남 금산, 인천 부평)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연령별로 다양한 이야기시간⁶⁰⁾과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⁶¹⁾을 운영하고 있다. 세분화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그에 적합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책읽기와 문화 활동이 연계된 독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주변을 책 읽는 문화로 일구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좋은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책읽는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책사회)이 2003년부터 문화방송과 함께 건립한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들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남 순천을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 들어선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짧은 기간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두 책을 읽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는 더욱 많은 사람들

58) 이진우, “책 읽어주는 어린이도서관 ‘동화기차’ 설립 및 운영 사례,”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2002. 9), 한국도서관협회, pp.427-449.; 부천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children.bcf.or.kr/>, (2006. 8. 2).

59)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이진우 사서와 인터뷰, 2006. 8. 26.

60) 한 살에서 두 살 아기들을 위한 이야기 시간, 세 살에서 다섯 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취학 적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초등학교를 위한 이야기시간, 초등학교 고학년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책교실 등이 있다(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 2006. 8. 2).

61) 아기들을 위한 이야기, 박자노래, 소리시간, 유아들을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와 책읽어주기, 어린이 독서지도, 독서교실, 독서 안내 프로그램,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도 프로그램, 학교공부와 책읽기의 연결 어린이세미나(책읽고 토론하기), 견학, 탐방, 관찰, 책 여행 프로그램들, 낭송과 낭독연행, 다매체 통합프로그램, 영상, 슬라이드, 인형극 공연, 도서관을 돕는 어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젊은 주부를 위한 육아돌기 프로그램, 자연관찰, 과학, 발견 등의 전시활동, 도서관에서의 별밤지기, 글쓰기, 책만들기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한여름밤의 무서운 이야기), 시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 2006. 8. 2).

을 도서관에 불러 모으는 식으로 상승작용을 하는 이름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⁶²⁾

위에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여기서는 일일이 다 소개 못했지만 지역마다 뜻있는 이들이 만든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들에서도 독서 본질에 근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민간 어린이도서관들의 설립과 운영 사례들은 종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관주도로 전시행정적으로 만들어져 이용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 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간의 도서관들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더욱 가깝게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아래에서부터 수렴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독서 환경은 독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의 대부분의 활동은 독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간의 이러한 활동들을 각 공공도서관 상황과 여건에 맞게 도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도서관간은 물론 민간 도서관과도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도서관별로 여건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대상으로 독서치료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를 중심으로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야말로 독서의 본질에 충실한 ‘체험형’ 독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은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한 가지는 책 읽기 자체를 통한 치유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을 지향한다. 이것은 ‘기획 독서’, ‘학습 독서’, ‘기능 독서’를 되도록 경계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 원리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참선이나 요가에서와 같다. 다른 한 가지는 독서치료사란 표현을 편의와 필요에 따라 드물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삼간다. 그 대신 치료 모임의 진행자 또는 인도자 정도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핵심 역할은 책읽기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⁶³⁾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 역할은 책읽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회원들이 우선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독서치료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그대로

62)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 ③ 지역공동체 바꾸는 ‘작은 도서관,’” (한겨레신문), 2006. 5. 16.

63)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Vol.60, No.2(2005. 12), p.168.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필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독서의 본질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자신의 내면과 깊숙이 대화하는 독서 체험이 아니고는 독서치료의 효과⁶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독서치료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도 독서의 본질이 바로 서야 독서를 통한 치유 체험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주부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필자의 연구에서 독서치료가 삶의 변화와 책읽기의 생활화로 나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한 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 평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일반과정의 강좌를 접했을 때는 아이들의 독서지도에 중점을 두었고, 독서치료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심화모임을 한다니 반가웠다. ‘갈 곳이 하나 생겼구나’ 해서 좋았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았고 끈끈한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 당겼다. 예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책이라 생소하긴 했지만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이 많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말이다.

강좌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선 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의 존재를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 주변에서는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우선 내가 가족들을 달달 복지 않게 되고 좀 너그러워졌다. 남편의 취미나 생활에 대해 따지는 것도 조금 줄어들었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가족 이외의 이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답을 달라고 나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책을 먼저 권하게 된다. 나처럼 그들도 깨달음의 행복을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난 지금껏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남의 판단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왔다. 이제부터 그런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런 나를 일깨워준 독서치료는 지금의 내게 ‘생활의 활력소’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긴 인생에서 이제 발을 한발 한발 내딛는 첫 돌된 아기의 모습이다. 열심히 해 볼 생각이다. 나는 앞으로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나로 살 것이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지혜롭게 살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가 아닌 ‘재미있게 만들어야지’로 (생각과 태도를 바꿀 것이다⁶⁵⁾)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세 가지 활동 즉, 책읽기, 글쓰기, 말하기 활동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책 읽기 자체가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치유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책 읽고 나서 글쓰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아픈 마음이 완화되거나 정서적 심리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

64) “이 연구에서 말하는 독서치료의 효과란 참여자들이 개개인의 삶을 독서치료를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삶을 통찰하여 자신을 재인식하게 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p.21).

65) 같은 논문, p.222.

를 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등 내적 변화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책을 잘 읽는 사람이 독서치료의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도 치유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책읽기를 즐기게 되기도 한다.

체험 중심의 독서치료는 무엇보다 '책읽기'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사서는 적극적인 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서는 자신의 독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이용자에게 참고서비스의 일환으로 독서안내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야말로 일하면서 배우고 훈련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V.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 : 결론에 대신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제도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독서'나 사교육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능독서'와 '전략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제도교육에서처럼 독서교육을 '평가와 학습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며, 사교육시장에서처럼 '참여 학생의 수가 곧 수입'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상업성이 배제된 공공기반 시설이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존립 성격 자체가 곧 독서 본질에 가까우며, 독서 본질을 구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은 우선 독자의 독서 경험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자의 수준에 따라 초보자인 경우에는 독서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급 독자인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독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독자와 연결된 문화 창작 활동으로 연계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선은 독서를 체험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되도록 사서가 직접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 사서가 직접 진행할 때 이용자들은 훨씬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진행자인 사서도 직업적 힘이 실려서 업무에 만족감이 높다. 물론 현재 도서관의 여건상 인력의 부족으로 사서가 모든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차차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방침에 발맞추어 사서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늘려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서교육의 왜곡에 대해 독서교육 목적의 왜곡, 독서 교과서의 문제, 독서교육 대상의 축소 문제로 꼽아서 그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학교나 사교육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독서'를 지양하고 독서의 진정한 목적인 즐거운 책읽기로 독자를 안내하는 데 독서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독서 교과서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권장독서목록, 필독도서목록 등으로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책읽기 이론과 방법에 '관해' 지식을 습득하거나 불특정다수를 향한 권장독서목록이나 필독도서를 배포하고, 책 읽기는 좋은 것이므로 읽

으라고 외치는 운동 차원의 강요로는 독서의 즐거움과 생활화로 이끌 수 없다. 또한 독서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해서도 안 된다. 평생학습사회에서 성인들에게도 독서는 자기 학습의 필수 수단이며, 어른들이 먼저 책과 만나야 아이들에게 책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세대를 이어 독서 문화가 형성되고 바로 설 수 있다. 독서교육의 왜곡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독서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독서교육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 수혜자로서 혹은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 본질에 대해 세 가지, 즉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이라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석학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을 창조적 감수성을 가진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연이 신의 영역이라면 문화는 인간의 영역이다. 문화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결과이며, 또한 그 과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다. 문화는 다양성을 자양분으로 한다. 비슷한 생각, 똑같은 의견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풍요로운 문화가 꽃 필 수 없다.⁶⁶⁾

따라서 이러한 창조적 감수성을 가진 창조적 계급을 길러내는 것이 그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사고를 통해 상상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있는 독서 행위야말로 창조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기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독서행위 자체는 개인적 행위로서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독서의 세계로 안내하거나 독서 이후의 표현을 통한 사회화 과정은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처럼 독서 전의 활동과 독서 후의 활동으로 독자를 연결하는 독서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 교사, 사서, 학부모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늘날 독서교육은 공교육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기초 기술로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일상 생활화와 그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독서를 삶의 기술로서 삼을 수 있도록 환경-시설, 자료, 사람-을 제공해야 한다. 독서 환경을 가꾸고 제공하는 중심은 도서관이고 그 주체는 사서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질 좋은 책을 세심하게 조직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과 확장된 독서 경험을 위해 물어오는 질문에 그 이용자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도록 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역할이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책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표현 활동과 문화 활동도 조직해야 한다. 이 표현 활동은 자신의 정서적 표현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인 '마음의 지성'⁶⁷⁾을 계발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래야

66)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살림, 2006), pp.15-16.

67) "마음의 지성이란 자신의 진정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정서를 들어주며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자벨 피이오자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여성신문사, 2004), 남윤지 옮김, p.9).

나와 남이 다르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관용과 다양성이 뿌리내리는 민주 사회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지성이 계발되면 자신의 행복은 물론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로 문화시민으로서 사회를 리더 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독서 본질에 충실한 독서 프로그램이 뿌리내릴 때, 혼탁한 독서 환경이 정화되어 삶의 본질과 맞닿은 독서 체험으로 '생애 독자'의 개발이 도서관의 '생애 이용자'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5. 6). pp.69-91.
- 국립중앙도서관. 국민독서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005. 3.
- 김경자.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승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회 운영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65-83.
- 김정근. “세계 책의 날 특별 기고 - 제3의 독서영역.” [교수신문] . 2002. 4. 29. 5면.
-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Vol.60, No.2(2005. 12). pp.163-186.
- 김홍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339-360.
- 김현희 외 공저. 독서치료의 실제. 학지사, 2003.
- 노들민, 페리 지음.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1.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2001.
- 박복선. “청소년 문화와 국어교육의 소통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15. (2002. 12), pp.81-101.
- 박복선. “독서 가로막는 독서교과서.” 특집: 독서교육의 길찾기 그리고 터잡기 중등리교육 (1998. 10). pp.61-65.
- 박영숙.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7년을 돌아보며.”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자료집. 제2집 (2006. 5. 28). pp.49-81.
- 박홍진·황인희. “도서관 활용수업의 실제.” 계명대학교중등교육연수원. 「2003년도 동계 중등교원 도서관활용수업직무연수교재」. 동연수원, 2005. pp.39-134.
- 신현재 외 등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박이정, 1993.

- 심재기 외. 고등학교 독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 안찬수. “독서기록과 추천도서, 섬세하게 들여다보기: ‘독서이력철’ 문제로 다시 생각해보는 독서교육.” 특집: 학교와 독서교육. 초등 우리교육. (2005. 10). pp.57-59.
- 이송희. “서울시 교육청 발간 <초등 독서지도자료>의 문제점과 독서교육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개토론회: 독서매뉴얼, 독서인증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교육의 방향 모색. (2005. 4. 27). pp.25-32.
- 이연옥.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5권 제3호(2004. 9). pp.41-63.
- 이연옥.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6권 제3호(2005. 9). pp.233-256.
- 임형연.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미국 보스턴 주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393-413.
- 정옥년. “사회교육기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 독서 연구. 제12호(2004). pp.197-231.
- 트렐리즈, 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이일남 옮김. 오리진, 1995.
- 피이오자, 이자벨.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남윤지 옮김. 여성신문사, 2004.
-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최운정. 그림책: 평론집. 비룡소, 2001.
- 한복희. 독서클리닉의 이론과 실제. 한국도서관협회, 2004.
- Rogers, Carl R. 학습의 자유: 인간중심교육. 연분희 옮김. 문음사, 2002.
- “수준별 책 추천 ... 현 중2부터 독서 내신 반영.” [조선일보]. 2005. 3. 23.
- “[어린이에게 책은 미래다] ③ 지역공동체 바꾸는 ‘작은 도서관.’ [한겨레신문]. 2006. 5. 16.
- “부산발 교육혁명...우수 교사 릴레이 공개 수업.” [중앙일보]. 2005. 6. 13.
- 독서능력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cyberbook.or.kr/test3.html>. (2006. 7. 19).
- 부천문화재단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http://children.bcf.or.kr/>. (2006. 8. 2).
- 부천문화재단 동화기차 어린이도서관 이진우 사서와 인터뷰. 2006. 8. 26.
-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홈페이지. <http://childbook.org/new2/>. (2006. 8. 2).
- 전국독서새물결모임 홈페이지. http://readingkorea.org/rt_list.html. (2006. 7. 19).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http://www.bookreader.or.kr/>. (2006. 8. 2).
- 한우리독서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hanuribook.or.kr/>. (2006. 8. 2).

КСІ